

마르크스 價値理論에서의 個別價値, 社會的 價値, 市場價値 및 市場價格의 關係

李 采 彦

勞動價値는 抽象的인 노동량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貨幣表示 市場價格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오해되어 왔다. 이 글은 노동가치와 현실의 시장가격을 연결하는 이론적 체계념들의 논리적 구조와 이론적 관계를 해명한 것이다.

1. 머리말

한 때는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이 마르크스주의 문헌에서조차 양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계급간의 착취현상을 설명하는 질적인 이론으로 널리 주장된 적이 있다. 이런 인식은 마르크스의 전형과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답할 수 없게 되자 소극적인 궁여지책으로 마르크스 가치이론의 폐기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가치이론이 상품가격에 관한 양적인 이론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계급간의 착취를 설명하는 질적인 역할조차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로머(Roemer(1982)), 보울스와 긴티스(Bowles and Gintis(1981)), 사무엘슨(Samuelson(1982)) 등이 등장하여 노동량으로 상품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논리로 임의의 다른 투입물(땅콩이나 강철 등)의 양으로도 상품가치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그 투입물도 착취된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머(Roemer(1986))는 가치개념을 구태여 원용하지 않아도 계급간의 착취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¹⁾ 결국 한 마디로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은 계급간의 착취를 설명하거나 상품가격을 설명하는 데 어디에도 전혀 쓸모 없는 군더더기임을 증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가치이론이 쓸모 없는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잘못된 인식되어 온 노동개념, 동질노동을 전제로 한 가치이론 때문임이 해명되었고(Lee(1993, pp. 466-469)) 마르크스의 원래의 전형과정도 사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새로운 발

(1) 그는 마르크스의 원래의 착취 개념을 퇴화시켜 등가교환에 기반을 둔 착취가 아니라 재산의 유무나 많고 적음 때문에 유발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견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²⁾ 이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을 부활시켜 제대로 상품가격을 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격이론으로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또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나날의 시장가격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구조를 해명하여 실용주의적 목적에 이바지할 때가 되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씌어진 것으로서 특히 가치와 가격을 연결하는 중간범주에 해당하는 개념들, 개별가치, 시장가치, 사회적 가치, 개별생산가격, 시장생산가격 등을 해명하고자 한다.⁽³⁾

2. 概括(Overview)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두 가지 관점, 즉 內在的 實體로서의 가치와 가격(: 실체적 범주)이라는 관점과 상품의 外在的 關係로서의 가치와 가격(: 관계적 범주)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려 한다. 내재적 실체란 관점은 모든 개별적인 상품생산에 대해 상품생산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즉, 상품생산세계 전체에 대해 개별상품이 類的 存在로서 갖는 위치나 비중을 수량화한 것이 바로 가치나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외재적 관계로서의 관점은 모든 개별상품생산은 모래알처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그 각각의 독립된 개별존재끼리의 외적인 관계를 수량화 한 것이 가치와 가격이라고 본다. 이 두 관점은 논리적으로 엄격히 분리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관계를 요약하면 <表 1>과 같다. 이를테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가치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후자, 외재적 관계로서의 가치와 가격이라는 관점에서만 가능하다.⁽⁴⁾

<表 1>에서 가치와 생산가격은 똑같이 실체범주 쪽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치에 대응하는 관계 범주로서는 개별가치,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이 있고 생산가격에 대응하는 관계범주로서는 개별생산가격, 시장생산가격과 시장가격이 있다. 마르크스의 이른바 가치에서 생산가격으로의 전형은 실체범주라는 맥락 안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가치와 생산가

(2) Yaffe(1975), Lee(1990, 1993), Moseley(1993, 1994) 등. 이들 모두가 전형과정과 관련해서 모든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Moseley(1993, 1994)는 화폐를 상품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마르크스의 화폐이론과 다르다.

(3) ‘個別生産價格’과 ‘市場生産價格’은 모두 마르크스에게서 빌려온 개념이다. ‘個別生産價格’은 Marx(1981, p. 800)에서 ‘市場生産價格’은 Marx(1981, p. 300)에서 빌렸다.

(4) “수요와 공급은 가치의 시장가치로의 전형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Marx(1981, p. 800)).” 마르크스의 이러한 언급은 바로 실체범주로부터 관계범주로의 전형을 가리킨다.

〈表 1〉 價値/價格 範疇의 內在的 實體에서 外在的 關係로의 轉形

| 실체범주 | 관계 범주 | | |
|------|-----------------|--------|-------------|
| | (부분적으로 실체적인 관계) | | (순전한 외적 관계) |
| 가치 | 개별가치 | 시장가치 | 시장가격 |
| 생산가격 | 개별생산가격 | 시장생산가격 | 시장가격 |

격이 형태만 서로 다르고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할 뿐 아니라 양적으로 서로 비교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계산의 단위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상의 차이는 두 범주가 실체는 같고 양적 구성원리가 서로 다른 때문인데, 뒤에 더 설명되겠지만 하나는 착취율 균등법칙과 노동가치의 분해라는 원리에 서 있으나 다른 하나는 이윤율 균등법칙과 각 상품구성 요소의 가치의 합성이라는 원리에 서 있다. 가치와 생산가격에 각각 대응하는 관계범주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시장가격 ↔ 개별상품간의 외적인 관계를 수량화
- 시장가치(시장생산가격) ↔ 상품세계 전체와 시장가격의 관계를 수량화
- 개별가치(개별생산가격) ↔ 상품세계 전체와 개별상품의 관계를 수량화

위 세 개념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장가격은 개별상품의 순전한 외재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두 개념인 시장가치(시장생산가격)와 개별가치(개별생산가격)는 상품세계 전체에 대한 관계를 미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체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부분적으로 실체적인 범주는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은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하 변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순전히 외재적인 관계만을 나타내는 시장가격은 그런 식의 변동폭의 제한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일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⁵⁾ 가치의 크기는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이 아닌 교환영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란 교환 외부에서

(5) De Vroey(1981), Eldred and Hanlon(1981). 이들에게 있어서 화폐는 사적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이는 화폐의 물신화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폐도 상품의 일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마치 노동생산물 자체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나 한 것처럼 신비화하고 있다.

는 쉽게 증발하는 찰나적 존재라고까지 주장한다(De Vroey(1981, p. 178, 185)). 그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시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물론 외재적 관계를 가리키는 시장가격에 대해서 타당하겠지만 내재적 실체를 의미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품가치에 응고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에 교환의 외부에서 쉽게 증발할 찰나적 존재라는 것은 가치의 실체적 개념과 모순된다. 물론 노동생산물의 상품화는 생산에서가 아니라 교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노동이 사회적인 노동의 일부로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교환에서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환이란 개별상품을 염두에 두었을 때의 얘기이지, 상품세계 전체를 염두에 둔 실체적인 입장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상품의 잠재적 가치가 실제 가치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먼저 판매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상품이 구매되지 않으면 그 상품의 잠재적 가치가 無價値(non-value)로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교환관계만으로 가치의 유무가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산에서 잠재적으로 無價値(non-value)한 것만이 교환에서도 無價値한 것(non-value)으로 실현될 수 있고 생산에서 잠재적으로 價値(value) 있는 것만이 교환에서도 價値(value)로 실현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潛在的 存在’와 ‘實現된 存在’는 동일한 존재의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⁶⁾ 노동가치도 바로 그 두 가지 존재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가치는 사용가치라는 용기에 담겨있을 때에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사용가치가 생산과 교환이라는 일련의 두 국면을 거쳐야 하므로 그 사용가치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가치도 비록 교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⁷⁾ 생산과 교환의 두 국면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두 국면을 거치면서 가치라는 존재가 잠재적 가치와 실현된 가치의 두 종류로 분화되어진다는 것이다. 가치란 존재는 생산과 교환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에 사용가치처럼 교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환 자체만으로 가치의 현실성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사용가치 가운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공황에서처럼 다른 문제로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잠재적 가치가 ‘파괴’되거나 ‘상실’될 뿐 잠재

(6) 사물은 변화, 생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잠재적 존재형태에서 실현된 존재형태로 이행한다.

(7) 교환이 이루어질 때 실제 교환되는 것은 사용가치이며 가치는 형태만 바뀔 뿐 그 크기나 존재는 그대로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 이를테면 화폐 100원으로 물건을 살 때, 100원의 가치는 화폐형태에서 상품형태로 형태만 바뀔 뿐, 구매자의 손에 남아 있는 가치의 크기와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적 가치가 無價値(non-value)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유해한 것조차 사기나 강압으로 판매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환이 아니라 가치의 이전을 노린 일종의 협잡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가치의 이전만 있을 뿐이며, 잠재적 무가치가 우연적인 교환에 의해 가치로 실현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양적인 크기에서는 교환국면에서 가치와 가격이 바뀔 수 있다(질적으로 무가치에서 가치로 바뀌거나 가치에서 무가치로 바뀌지는 못하지만). 이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교환의 사회적 관계의 부조화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경우의 조정메커니즘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외재적 관계를 표현하는 범주들인 “시장가격 ← 시장가치 ← 개별가치” 혹은 “시장가격 ← 시장생산가격 ← 개별생산가격”이다. 반대로 생산관계와 교환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룰 경우에는 더 이상 수요공급이 문제될 수 없다. 실제범주들이 직접 개별상품가치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생산관계 중에는 지주계급에 대한 지대나 국가에 대한 조세 및 교회에 대한 헌금 등과 같은 아무런 교환관계도 대응하지 않는 생산관계들이 있다. 이런 현실의 생산관계에는 교환관계가 아닌 공납관계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관계와 교환관계가 서로 조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⁸⁾ 따라서 실제범주 이외에 관계범주가 우리의 논의에 당연히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고 수요공급이 후자의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실제범주와 관계범주의 구별은 이 글의 뒷부분에서 논의할 초과이윤의 원천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實體範疇로서의 價値와 價格

가치와 가격을 지금까지는 보통 계산단위의 차이로 구별해 왔다. 가치는 노동을 기준으로 가격은 화폐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별은 원래 마르크스의 가치에서 가격으로의 전형과정과 개념상 조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전형과정에서는 노동으로 계산된 가치와 화폐로 계산된 가격이 하나의 방정식 안에서 양적으로 서로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양적 비교를 합리화하기 위해 종래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전형과정 이전에 미리 가치와 가격을 같은 계산단위로 통일하려 하였다.⁽⁹⁾ 물론 이

(8) 따라서 토지나 국가 혹은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동생산물이 아니지만 상품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외관을 취하여 판매대상으로 시장에 나온다.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교환 형식으로 눈에 비칠 뿐이고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런 작업은 마르크스에게는 없었다. 이 군더더기 행위를 한 뒤에도 미심쩍어 그들은 가치와 가격을 양적으로 직접 비교하기 이전에 계산단위의 크기도 미리 같게 해야 한다고 믿고 일종의 尺度(numeraire)로서 “價格總合 = 價值總合”이나 “利潤總合 = 剩餘價值總合”을 미리 가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불변의 척도로 미리 가정하였던 가치와 가격 관계가 전형과정의 결과로 다시 도출되는 데 있었다. 가격-가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전형과정인데 이 관계를 양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미리 “가격총합 = 가치총합”을 가정하고 나서 산출물의 가격을 투입물의 가치로 반복 치환한 뒤 얻은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 마찬가지로의 “가격총합 = 가치총합”이었던 것이다. 이는 전형과정을 일종의 순환과정으로 퇴화시킨 것과 같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의 전형과정은 잉여가치의 정의로부터 “이윤총합 = 잉여가치총합”이라는 관계식을 미리 상정한 뒤 전형절차를 밟는다. 그 결과 나온 가치-가격 관계는 앞서의 출발점과는 구별되는 ‘가치총합 = 가격총합’이었던 것이다. 물론 산출물의 가격을 투입물의 가치로 반복적으로 치환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최근 Lee(1990, 1993)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산출물의 가격을 투입물 가치에 반복 치환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더라도 여전히 마르크스의 논리구조와 동일하게, “이윤총합 = 잉여가치총합”이라는 관계식에서 출발하여 ‘가치총합 = 가격총합’이라는 새 관계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는 가치와 가격은 같은 실체를 가지고 형태만 달리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비교 가능하게끔 같은 계산 단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앞에서와 같은 군더더기의 공통된 척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表 2>는 그의 가치-가격 관계에 대한 개념적 구별방식을 보여준다. 가치와 가격은 똑같이 노동을 실체로 하고 있으며 형태만 서로 달리 한다. 내적 형태와 외적 형태의 구분은 형태상의 내용과 형식을 의미한다. 내용적으로는 형태가 실제적 구분인 가치와 가격으로 구분되지만 형식에서는 하나는 직접가격(혹은 가치가격) 다른 하나는 화폐생산가격으로 구분된다.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表 2> 實體가 같고 形態만 다른 價值와 價格의 두 形態

| | 실 체 | 형 태 | |
|------|-----|-----------|------------|
| | | 내적 형태(내용) | 외적 형태(형식) |
| 가치 | 노동 | 가치 | 가치가격(직접가격) |
| 생산가격 | 노동 | 생산가격 | 화폐생산가격 |

(9) 그들은 가치를 먼저 직접가격으로 전형시킨 후 생산가격과 양적으로 비교하거나(Shaikh (1977), Mohun(1994)). 생산가격을 擬似價值(quasi-value)로 먼저 전형시킨 후 가치와 양적으로 비교하곤(Okishio(1974)) 하였다.

화폐가격(가치가격 혹은 화폐생산가격)의 변화 원인이 해당 상품의 가치내용(혹은 생산가격 내용)의 변화인가 아니면 화폐 자체의 가치내용(혹은 생산가격 내용)의 변화인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온도의 내용이 따로 있고 수은주의 높이 관측 자체가 따로 있다. 관측방식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차를 온도의 내용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해 내적 온도형태와 외적 온도형태를 구별하듯이 바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내적인 가치형태(가치나 생산가격의 내용)를 외적인 가치형태(가치가격이나 화폐생산가격)와 구별하는 것이다.

외적형태는 내적형태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외적 조건이 바뀌면 변화할 수 있다. 화폐의 가치(혹은 생산가격)가 변하면 모든 가치(혹은 생산가격)의 외적 형태가 일률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와 가격을 계산단위로 구별하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내적/외적 구분이 불가능하다. 모훈(Mohun(1994)), 폴리(Foley(1982, 1986a, 1986b)), 드 브로이(De Vroey(1981)) 등이 새로 제시한 가치-가격 전형과정도 여전히 가치와 가격을 계산단위가 다르다는 데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위 비판은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은 가치와 가격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단위가치를 가격에 곱하여 가격을 노동단위로 변환하고 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화폐의 가치가 화폐의 생산가격과 일치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전제를 그들은 화폐는 상품이 아니라는 전제를 통해 암묵적으로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화폐개념은 마르크스의 원래의 화폐개념, 화폐는 상품의 일종이라는 정의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들은 오히려 마르크스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다면 Lee(1990, 1993)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는 가치와 가격이 같은 척도, 같은 계산단위, 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크기가 결정되는 원리에서는 다르다고 본다. 한마디로 하나는 분해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합성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 대조는 <表 3>에 요약되어 있다. <表 3>에서 c_i , v_i , s_i 는 통상 의미하는 대로 각각 불변자본의 가치, 가변자본의 가치, 잉여가치를 나타내고 ρ_i 는 이윤율, π_i 는 이윤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pi_i = \rho(c_i + v_i)$, $\rho = \sum s_i / \sum (v_i + s_i)$ 의 관계식이 주어진다 고 볼 수 있다.⁽¹⁰⁾

상품가치의 결정에서 새로 생산된 가치부분은 $(v_i + s_i)[= (1 + e)v_i]$ 이고 舊가치(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치와 감가상각비: 간접노동의 양)는 c_i 이다. 이에 비해 생산가격의 결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된 자본가치는 $c_i + v_i$ 가 되고 새로 생산된 자본

(10) 보다 자세한 Lee(1990, pp. 190-197), Lee(1993, p 471, n. 1)을 참조.

〈表 3〉 價値와 價格의 決定 原理 比較

| | 가치 | 생산가격 |
|------------------------------|-----------------------------|----------------------------|
| 투하가치 | c_i | $c_i + v_i$ |
| 새로 생산된 가치 | $(v_i + s_i)[= (1 + e)v_i]$ | $\pi_i[= \rho(c_i + v_i)]$ |
| 가치요소(c_i, v_i, s_i)의 加法性 | No | Yes |
| 원리의 법칙성 | 잉여가치를 均등법칙 | 이윤율 均등법칙 |

가치는 s_i 혹은 $\pi_i[= \rho(c_i + v_i)]$ 이다. 새로 생산된 가치 $v_i + s_i$ 는 직접노동의 양에 의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는 v_i 와 s_i 의 합이 아니라 오히려 v_i 와 s_i 로 분해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分解의 原理라 부른다. 이를 스티드만(Steedman(1976))은 거꾸로 이해하여 상품가치는 c_i 와 v_i 와 s_i 라는 세 요소의 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생산비가격이론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리카도 이전의 노동가치이론에 해당한다. 〈表 3〉의 생산가격에서는 처음부터 v_i 와 s_i 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합쳐져야 가치/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우리는 合成의 原理라 부른다. 이는 종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형논쟁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못한 부분이다.

노동가치가 생산가격과 마찬가지로 합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가치-가격의 전형문제에 접근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샤이크(Shaikh(1977))이다. 투입물의 가치를 다시 전형시키는 과정에서 가변자본의 가치 v_i 를 그는 가치-가격 승수인 ψ 로 곱하여 새로운 가변자본의 가치 $v_i\psi$ 를 구하였는데 이 때 가변자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잉여가치 s_i 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곱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반복적인 전형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한번도 잉여가치에 대해서는 승수로 곱해주지 않았다. 그는 직접노동의 두 파편이라 할 수 있는 v_i 와 s_i 를 마치 별개의 독립된 요소인 것처럼 취급한 것이다. 만약 그 두 파편이 동일한 실체인 직접노동의 서로 다른 두 쪽임을 인정하였다면 v_i 를 ψ 로 곱하여 $v_i\psi$ 로 바꾸었을 때 당연히 s_i 도 똑같이 ψ 로 곱하여 $s_i\psi$ 로 바꾸었어야 옳았다. 왜냐하면 직접노동의 양 $v_i + s_i$ 는 계산단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v_i 를 ψ 로 곱하면 똑같이 ψ 로 곱하여 $(v_i + s_i)\psi$ 로 바꾸었어야 했기 때문이다.⁽¹¹⁾ 그렇게 해야만 착취율 e_i 가 생산국면에서 결정된 그대로 전형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다. 단순한 가치-가격의 전형과정 때문에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착취율이 변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샤이크의 전형에서는 착취율 자체가 전형과정 자체에 의해 부단히 변경되고 있다.

(11) v_i 를 ψ 로 곱하여 $v_i\psi$ 로 바꾸었을 때, 바뀐 것은 v_i 의 크기가 아니라 직접노동의 양, $v_i + s_i$ 의 단위이다. 같은 크기의 노동량이 $v_i + s_i$ 에서 $(v_i + s_i)\psi$ 로 표시 방법이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하여 노동 한 단위의 크기가 “ $1/\psi$ ”로 축소 조정된 것이다.

4. 關係範疇로서의 市場價格과 市場價値

여기서는 개별가치와 개별생산가격이 같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는 동일 생산부문내의 개별자본간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생산부문간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까지 무시한다면 시장가치와 시장생산가격도 같다고 가정된다.

개별가치는 개별생산자가 주어진 생산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이윤마진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상품가치가 결정되는 경우이다. 당연히 생산조건이 다르면 개별생산자마다 다른 개별가치를 가진다. 만약 다수의 개별가치를 대표하는 개별가치가 있으면 바로 이것이 시장가치의 역할을 한다. 여러 개별가치 가운데 어느 것이 대표적인 개별가치인가는 시장조건에 따라 다르다. 시장가격이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의 균형상태를 반영한다면 시장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가격의 평균추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시장행위자들에게 치침이 되는 것은 물론 시장가격이 아니라 시장가치이다.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또 다른 차이는 전자는 변동의 폭이 정해져 있어 상한과 하한이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구별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마찰의 장기, 단기 및 市場期間(market period)에 따른 균형조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

시장기간이란 경쟁의 힘이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품간의 대체가 이미 시장에 등장한 산출물에서만 가능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각 종류의 상품의 공급량은 미리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短期(short period)에서는 경쟁의 힘이 생산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쳐 공급량이 생산조건과 시장가격의 비교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과 노동이 생산부문간에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기간이 길지는 못하다. 자본과 노동의 생산부문간 이동은 장기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이른바 일반균형은 長期(long period)에서만 가능하다. 定常經濟(stationary economy)의 균형이나 成長經濟(growing economy)의 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있으면 쉽게 교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첫째 시장기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가격에서 일시적 균형을 이룬다. 이 균형이 일시적인 것은 시장가치로부터 시장가격이 괴리되어 있다는 뜻에서이다. 시장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부문의 열악한 생산조건의 기업도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시장수요가 강하여 시장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별가치(가장 열악한 생산조건의 생산가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시

〈表 4〉 세 期間別 세 가지 均衡

| | 시장기간 | 단기 | 장기 |
|------|---------------------------|------------------------|-------------------|
| 일반균형 | | | $x_j = y_j = z_j$ |
| 정규균형 | | $x_j = y_j (\neq z_j)$ | |
| 일시균형 | $x_j \neq y_j (\neq z_j)$ | | |

註: x_j, y_j 및 z_j 는 각각 시장가격, 시장가치(시장생산가격), 사회적 가치(평균개별가격)를 나타낸다. j 는 j 번째 생산부문을 가리킨다.

장가치는 물론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그러나 제일 높은 개별가치 수준에서 결정된다. 단기에서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시장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은 곧바로 대표적인 평균적 개별가치 수준인 가장 높았던 개별가치 수준으로 이동한다.

역으로 공급과잉이나 열악한 시장수요로 시장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개별가치보다 더 낮아지면 가장 훌륭한 생산조건을 가진 기업도 정상적 이윤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시장가치는 시장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그러나 가장 낮은 수준의 개별가치에서 결정된다. 생산자들은 그 생산부문을 벗어나 다른 수익성이 좋은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단기균형에서는 부문간 자본이동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생산단위를 정지 혹은 파괴하는 데 그쳐 시장가격만 시장가치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 〈表 4〉에서처럼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이 일치하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의 정규적 균형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단기에서의 경쟁은 상품공급의 변화를 통해 시장가격을 시장가치와 같도록 만든다. 여기서 시장가치 변동의 범위는 최고 개별가치 및 최저 개별가치에 의해 상한과 하한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어진 생산부문이 번영하고 있다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시장가치가 최고수준의 개별가치에서 결정되고 쇠퇴하는 산업이면 최저수준의 개별가치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어느 쪽도 아닐 경우, 최고 및 최저의 양극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통상 개별가치의 가중평균에서 혹은 지배적인 생산조건에 개별가치가 시장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산업도 쇠퇴하는 산업도 아닐 경우이다.

장기에서는 자원의 생산부문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균형이 모든 생산부문에 걸쳐 다 성립한다. 이른바 일반균형은 이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表 5〉와 같다.

〈表 5〉 關係論的 諸範疇의 相互關係

| 〈시장가격 = 시장가치〉에서의 수요와 공급 | 시장가격 수준 | 시장가치 수준 |
|----------------------------|-------------|----------------|
| 공급 > 수요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최저 개별가치 |
| 공급 < 수요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최고 개별가치 |
| 공급 = 수요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최저/최고 개별가치의 중간 |

5. 超過利潤

여기서는 초과이윤의 발생이 부등가교환만이 아니라 등가교환에서도 가능함을 보이려 한다. 등가교환이란 시장가격과 시장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상품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처럼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같다고 가정하여 시장가치와 시장생산가격, 사회가치(평균개별가치)와 평균 개별생산가격을 구별하지 않기로 하자.

부등가교환은 〈表 6〉의 처음 두 행에서처럼 시장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경우인데 이 때는 생산부문간의 일방적 가치이전을 가져온다. 이 때의 초과이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 부문 전체가 누리는 초과이윤으로서 시장가격과 시장가치의 차액과 같다. 이는 부문간의 부등가교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초과이윤으로서 그 생산부문 내에서의 개별적 생산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개별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액과 같다. 이는 부등가교환 자체와 무관하다. 이 두 가지 초과이윤이 모두 負의 값을 가질 경우는 생산활동을 중단하도록 강제된다.

등가교환은 〈表 6〉의 셋째 행에서처럼 시장가격과 시장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인데 〈表 6〉의 (3)과 (4)에 대응하는 두 종류의 초과이윤을 낳는다. (3)의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개별생산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산조건의 불균등에 의한 개별적 초과

〈表 6〉 市場價値와 社會的 價値의 關係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사회적 가치 |
|-------------|----------------|--|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최저 개별가치 | (1) 시장가치 < 사회적 가치 |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최고 개별가치 | (2) 시장가치 > 사회적 가치 |
| 시장가격 = 시장가치 | 최고/최저 개별가치의 중간 | (3) 시장가치 = 사회적 가치 (4) 시장가치 > 사회적 가치 |

이윤이다. 그 생산부문 전체로서는 자기 생산부문에 생산된 정규적인 이윤만 수취하기 때문에 이 때의 초과이윤은 필요노동의 삭감과 그에 따른 잉여노동의 연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Marx(1976, p. 435)]. 이런 개별적 초과이윤을 마르크스는 초과잉여가치라고 불려 초과이윤 자체와 구별하였다. (4)의 경우 초과이윤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가치이전을 통해 수취된다. 이 생산부문 전체가 수취하는 초과이윤의 합은 시장가치와 사회가치의 차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보다 자세한 설명이 참조될 수 있다.

차액지대 일반에 관하여 지적하여 두고 싶은 것은 시장가치가 항상 그 생산부문의 생산총량의 총생산가격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表 1>을 예로 들어보자. 총생산량 10 퀴터는 600실링으로 판매된다. 왜냐하면 시장가격은 A의 퀴터당 생산가격이 60실링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생산가격은 아래와 같다.

| | | |
|-----------|-----------|----------|
| A 생산량 1퀴터 | 생산가격 60실링 | 퀴터당 60실링 |
| B 생산량 2퀴터 | 생산가격 60실링 | 퀴터당 30실링 |
| C 생산량 3퀴터 | 생산가격 60실링 | 퀴터당 20실링 |
| D 생산량 4퀴터 | 생산가격 60실링 | 퀴터당 15실링 |

생산량 10퀴터 생산가격 240실링 퀴터당 24실링 (평균)

10퀴터의 실질생산가격은 240실링인데 시장에서는 600실링으로 250%나 높게 판매된다. 평균적으로는 1퀴터의 실질가격은 24실링인데 시장가격은 250%나 높은 60실링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경쟁을 통해 실현되는 시장가치의 결정방식이다. 이러한 誤認된 社會的 價値(false social value)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경쟁인 것이다. 이는 농산물이 따라야 하는 시장가치의 결정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Marx(1981, p. 799)].

위에서 생산가격의 총합(240실링)은 그 생산부문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 차액지대의 합인 360실링만큼 시장가치총합(600실링)이 사회가치(240실링)를 초과하고 있다. 흔히 이 경우 시장가치를 바로 사회가치와 동일하다고 보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시장가치 600실링에서 바로 (일시균형이 아닌) 정규균형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이러한 시장가치를 오인된 사회가치라고 불렀다. 그리고 진정한 사회가치와의 차이를 그 생산부문의 초과이윤이라고 보았다.

결국 정규균형의 등가교환에서도 시장가치와 사회가치가 괴리되는 수가 있는데 이 때에도 일종의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이 초과이윤은 다른 생산부문으로부터의 가치이전을 통

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이 생산부문에서 생산된 생산가격의 합은 240 실링인 데 비해 판매가격의 합은 600실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엔 시장생산가격과 시장가치, 개별생산가격과 개별가치가 더 이상 같지 않다. 이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해 온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범주별 구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자본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다고 보고, 개별가치가 개별생산가격보다 더 크다고 가정하여 마르크스(Marx(1981, pp. 872-916))는 이 부문의 사회가치가 시장생산가격보다 더 높다고 추정한 후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 (1) 부문의 시장가격 \geq 부문의 사회가치 \geq 부문의 시장생산가격
- (2) 부문의 사회가치 $>$ 부문의 시장가격 \geq 부문의 시장생산가격
- (3) 부문의 시장가격 = 부문의 시장생산가격 $>$ 부문의 평균개별생산가격

마르크스에 의하면 (1)의 경우 독점지대가 시장가격과 사회가치의 차액만큼 발생한다. (2)의 경우엔 절대지대가 시장가격과 시장생산가격의 차액만큼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사회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액은 마르크스의 전형과정에서는 해당부문에서 여타부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는 절대지대로 변환되어 여타부문으로 이전됨이 없이 그 부문에 그대로 귀속된다. 그러나 (3)의 경우에는 시장생산가격과 개별생산가격의 차액만큼 개별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이를 마르크스는 차액지대라 불렀다. 이상 세 종류의 지대 가운데 독점지대만이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가치이전에 의해 발생하고 다른 두 가지 지대는, 사회가치가 시장가격보다 더 큰 한에서는, 그 부문 내부에서 원래 생산된 가치이다.

그러나 절대지대나 차액지대의 경우는 비록 해당 생산부문 내에서 생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형과정에서 이윤을 균등법칙에 따라 여타 생산부문으로 이전되었어야 할 가치이다. 따라서 생산가격이라는 관점에서는 세 가지 지대 모두 해당 생산부문 외부에서 조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타 생산부문에서 농업부문에 대해 지불하는 善事 혹은 貢物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대(초과이윤)의 수취는 농업부문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 시장생산가격이 평균 개별생산가격보다 높으면 이러한 초과이윤이 정규균형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6. 要約 및 結論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구별하였다. 첫째, 가치와 생산가격을 실제적 범주에서 구별하여 종래의 계산단위에 따른 구별, 즉 가치는 노동으로 가격은 화폐로 계산한다는 구별을 부정하고 대신 가치와 가격은 같은 실체, 같은 계산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차이점은 양적 크기의 결정원리에 있음을 보였다. 둘째, 개별가치(개별생산가격), 시장가치(시장생산가격), 시장가격이라는 관계론적인 범주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여 수요공급의 균형조건이 시장기간, 단기, 장기에 걸쳐 유기적으로 관련된 조건 위에서의 가격의 결정과정을 해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범주로서의 사회가치와 관계범주로서의 시장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른바 초과이윤, 일방적 가치이전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초과이윤인 일방적 가치이전은 부등가교환에서뿐 아니라 등가교환에서도 가능함을 보였다.

全南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화: (062) 530-1552
팩시: (062) 530-1559

參 考 文 獻

- Bowles, S., and H. Gintis(1981): "Structure and Practice in the Labor Theory of Valu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2**, 4.
- De Vroey, M.(1981): "Value, Production and Exchange," in I. Steedman (ed.), *The Value Controversy*, London, Verso.
- Eldred M., and M. Hanlon(1981): "Reconstructing Value-Form Analysis," *Capital and Class*, **13**.
- Foley, D.K.(1982): "The Value of Money, the Value of Labor-Power and the Marxian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4**, 2.
- _____ (1986a): *Understanding Capital: Marx's Economic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 (1986b): *Money, Accumulation and Crisis*, Chur, London, Paris and New York, Academic Publishers.
- Groll, S.(1980): "The Active Role of "Use Value" in Marx' s Economic Analysi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2, 3**, Fall.
- Lee, C.O.(1990): "On the Three Problems of Abstraction, Reduction and Transformation in Marx' s Labour Theory of Value,"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____ (1993): "Marx' s Labour Theory of Value Revisite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 4**, 463-478.
- ____ (1998): "The Distinction between Social Value, Individual Value, Market Value and Market Price in Volume III of Capital," in Riccardo Bellofiore (ed.), *Marxian Economics: A Reappraisal*, London and New York, Macmillan & St. Martin' s Press.
- Marx, K.(1976): Ben Fowkeo (trans.), *Capital*, I, London, Pelican.
- ____ (1981): David Fernbach (trans.), *Capital*, III, London, Pelican.
- Mohun, S.(1994): "A Re(in)statement of the Labour Theory of Valu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8, 4**, August.
- Morishima, M.(1974): "Marx' s Economics in the Light of Modern Economic Theory," *Econometrica*, **42, 4**.
- Moseley, F(1993): "Marx' s Logical Method and the "Transformation Problem," in F Moseley(ed.), *Marx' s Method in Capital*, Humanities Press.
- ____ (1994): "Marx' s Logic in Capital and the 'Transformation Problem' ,"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rxian Economics: A Centenary Appraisal,' University of Bergamo, Italy, 15-17 December.
- Okishio, N.(1974): "Value and Production Price,"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20**.
- Roemer, J.E.(1982):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 (1986): *Value, Exploitation and Class*, Chur, London, Paris and New York,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Samuelson, P.A.(1982): "The Normative and Positive Inferiority of Marx' s Values Paradigm," *Southern Economic Journal*, **49, 1**.

Shaikh, A.(1977): "Marx' s Theory of Value and the Transformation Problem," in J. Schwarts(ed.), *The Subtle Anatomy of Capitalism*, Santa Monica. CA, Goodyear Publishing.

Steedman, I.(1976): "Positive Profits with Negative Surplus-Value: A Reply," *Economic Journal*, **86**, September.

_____ (1977): *Marx after Sraffa*, London, New Left Books.

Yaffe, D.(1975): "Value and Price in Marx' s Capital," *Revolutionary Communist*, **1**, January.